



‘평화의 날’ 만들기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아, 불쌍한 남편.”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아내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마침내 가출, 주위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은 한 남자의 얘기를 보도를 통해 접한 이들이 보인 한결 같은 반응이다.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을 몽땅 차지하려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니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남편임에 틀림없다.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일까. 기사가 주는 충격은 아내인 여성들보다도 남편인 남성들에게 더 컸다. 기실 가끔씩 ‘매맞는 남편’의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이렇게 극심한 학대를 받아 재판이혼까지 이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떤 남성들은 내심 ‘불쌍한 남편’이 우리 가정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어 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폭력엔 골리앗이라도 견디어 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폭력에 길들여지는 탓이다. 아무리 힘이 약한 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얻어맞으면 ‘왜 때리느냐’고 거칠게 대항한다. 그러나 이것도 초기에서나 가능할 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 으레 때리면 맞는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게 된다. 대항해두고쳐지지 않고 나아가 더 가혹한 폭행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합리화시켜 내면의 갈등을 없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라리

맞고 있는 상태를 편안하게 느낀다고 한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언제 맞을지 몰라 불안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불쌍한 남편’도 정신병원에 격리된 경험이 없었거나 주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저 아내의 학대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갔을 것이다. 성폭행을 일삼아 온 의부를 남자친구가 살해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김보은 사건’에서도 십수년간 지속된 가해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판단력이 모두 마비돼 버렸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폭력을 주고 받거나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폭력을 답습한다. 자연스레 폭행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인식해온 탓이다. 걸핏하면 손부터 올라가고 회초리를 찾아 나서거나 “맛을 줄 알아라”를 연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5월이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우리 모두 ‘폭력 없는 가정’을 약속해보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형은 동생에게 이 달만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한 달이 길다면 어느 한 요일을 ‘평화의 날’로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리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애쓴 경험. 이것이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한겨레**

